

[별지 제3호 서식]

정견서

후보자 성명	전 용 범
정견서	
<p>저는 보험계리사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험계리사회의 위상 강화를 통하여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7대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에 입후보합니다.</p> <p>지난 30여년간 저는 Volunteer로서 보험계리사회 이사, 상품위원장, 상임이사 및 부회장 직을 수행하며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사회의 성장을 함께하였습니다. 상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품 관련 주요 이슈, 현안 등에 대해 보험계리사회가 전문가 단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하였고, 특히 CFP 도입시 계리사회의 선후배 위원님들과 감독당국이 협력하여 무난하게 마무리한 점은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6년 이상 보험계리사회의 예·결산, 사업계획 등을 수립, 시행, 관리하며 회 운영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p> <p>상기 말씀드린 사항과 제25, 26대 이재민 회장이 추진해온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저는 보험계리사의 권익 향상과 보험계리사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첫 째, 보험계리사의 오랜 숙원인 독립 법령, 「보험계리사법」을 제정하겠습니다.</p> <p>작년부터 지금까지 보험계리사법 추진단장으로서 생손보 선임계리사분들로 TF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보험업계 및 감독·정책 당국 등과 협의하며 보험계리사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기존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원칙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본격 시행되고 지급여력제도(K-ICS)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p> <p>그러나 유사한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보험계리사</p>	

에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산재됨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유사 전문가집단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험계리사 제도를 육성하고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계리사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보험계리사회의 자율규제·공익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회는 현재 국제계리사회에서 제정한 국제계리실무기준(ISAP)을 한국계리실무기준(KSAP)으로 채택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는 등 IFRS17 도입에 따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 Rule-Based에서 Principle-Based로 업무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회는 실제 보험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Best Practice 등을 제정·연구하여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반 국민, 보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 차원의 계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문가의 가장 기본 덕목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험계리사가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수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계리연수원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덜한 온라인 교육을 확장 개설하고, 실무 중심의 집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계리·상품·리스크 관리 분야 외에 보험계리사의 시야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도 제공하며, 경력별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매트릭스화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을 통해 보험계리사의 지속적 전문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보험계리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24년 예정된 국제계리사회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재민 회장이 유치에 성공한 ‘2024 국제계리사회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 하고 한국 보험계리사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2024 서울 총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이며, 우

리회가 국제계리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1년 만에 유치한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에, '2024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정책·관광 당국과의 긴밀한 협업, 회원사의 지원 등을 통해 서울 총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주인인 한국보험계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계리사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분들이 우리회에 실질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회원 간의 교류도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제공 중인 회원 서비스를 회원 니즈에 맞게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보험계리사회 소속 많은 선배님, 후배님, 동료 덕분에 보험계리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이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사회가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신다면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험계리사회 귀중